

“BDA 해결 즉시 초기이행조치 시작”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모든 6자회담 관련 이행조치, 특히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BDA는 2·13 합의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별개로 제기됐던 별도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BDA 문제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만 해소되면 2·13 합의의 6자가 합의한 구도는 온전히 남아있게 된다”며 “북핵 불능화를 논의하는 과정이 더 어렵지, 초기단계조치는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靑 “BDA와 2·13 합의는 별개의 문제” 각국 초기조치 성실히 이행 태도 변화 없어

그는 “BDA 문제가 해결되면 애초 지난 3월 베이징에서 논의하려 했던 모든 부분들은 당연히 다시 논의가 되고, 특히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사전협의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진전을 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각자가 해야 할 이행조치를 성실히 취해 나가겠다는 태도는 하등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 그는 “지난 2월 백종현 청와대 안보

실장의 방미 이후 특별히 추가적인 진전은 없다”며 “앞으로 북핵상황을 포함해 여러 가지 진전을 봐가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현재 구체적으로 일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미국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4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평화체제와 관련된 것인데 아직 공론화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오�히러 6자 외교장관회담이 언제 열릴 지에 대한 관심이 현재로서는 더

많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 FTA 협상 결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해석차와 관련, 그는 “한미 FTA 부속서에 역외개성공단을 포함시킨 것이 처음부터 개성공단을 염두에 둔 것이고, 선택적인 측면에서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FTA 협정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집어 넣을 때도 개성공단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고 최종적으로 나타난 문안이 무엇을 함축하는 지 양국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출발해 우리의 강한 주장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100일

국제분쟁 해결사로... 유엔 개혁 탄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월 2일 취임식 이후 세계 분쟁의 해결과 유엔 사무국 개혁을 위해 강행군을 한 반 총장에게 지난 100일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

수단의 다르푸르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아프리카와 중동의 지역분쟁은 반 총장이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최우선 현안이었다. 또한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온 유엔 사무국 개혁도 솔선수범하고 나서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취임초 반 총장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 등을 내비치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던 세계의 주요 언론들도 최근에는 반 총장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분쟁해결을 위한 강행군=반 총장은 취임 직후 다르푸르 사태 등 지역 분쟁 해결을 자신의 최우선 현안이라고 밝혔듯이 지난 100일간 지역 분쟁해결을 위해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였다.

반 총장은 1월23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등 7개국을 방문하는 9박10일간의 출장에 나선 것을 비롯해 그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방문하는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국제 외교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라크 정상회담 막간에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과 다르푸르 분쟁을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라크 폭탄 테러에도 일정 강행 세계 언론, 취임 초 냉소→지지로

대에서 분쟁해결사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반 총장은 깜짝 방문한 이라크에서 누리 알-말리키 총리와 기자회견을 갖던 중 인근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을 겪기도 했지만 출장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 분쟁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탄력받는 유엔 개혁=취임 직후부터 유엔 사무국 조직과 일하는 문화의 개선에 나선 반 총장의 유엔 개혁도 탄력을 받고 있다.

반 총장은 유엔 직원들의 이동성 및 멀티태스킹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뉴욕의 본부 자리를 현장 직원들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자신이 출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사무총장실부터 13개 자리를 개방했다.

그 결과 유엔의 전세계 현장에서 근무하는 1천300여명의 직원이 사무총장실 근무를 지원할 정도로 현장 직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정일 면담·영변 핵시설 방문 요청

北 방문 리처드슨 주지사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가 지난 8일 북한에 도착해 3박4일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2·13북핵 합의 이행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과 프린시피 전 보훈처장관 등이 포함된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동행한 AP 기

자에게 이번 방북 목적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에 있을 뿐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 의도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또 북한이 의견을 매우 중시한다며 미군 유해 송환 논의가 북미간 관계 증진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 최고지도자들과의 면담 및 영변 핵시설 방문 등을 북한측에 요청했으나 북한 체제의 속성상 향후 일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아리랑 2호 평양 사진 첫 공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가 최근 촬영한 북한 평양과 서울지역 위성영상을 9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 2월 촬영된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 주변 모습.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는 2~3일 주기로 한반도 전 지역을 가로 15km, 세로 800km 크기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佛 대선 공식 선거전 돌입

우파 사르코지 박빙 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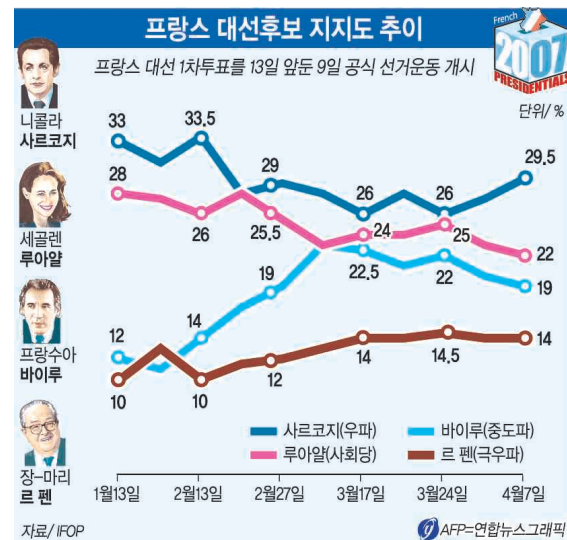
프랑스 대선 1차투표를 13일 앞둔 9일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가운데 누가 최종 승자가 될 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관세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에 따라 12명의 후보는 지지도와 관계없이 TV 채널과 라디오 방송에서 광범한 방송 시간을 부여받고 거리에는 선거 포스터들이 나붙어 선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1차 투표 이틀 전인 20일 자정에 종료되며, 이 때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금지된다.

이번 선거는 프랑스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 여부, 중도 후보의 성공 가능성, 정치 세대 교체 등의 요소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 속에 치러진다.

8일 르 주르발 뒤 디방슈에 보도된 IFOP의 지지도 조사에서는 우파의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가 29.5%로 선두를 고수했고, 사회당의 세갈렌 루아얄 22%, 중도 후보 프랑수아 바이루 19%, 극우파 후보 장-마리 르 펜이 14%를



각각 기록했다. 사르코지의 선두 고수 속에 루아얄의 정체, 바이루와 르 펜 간 격차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론적으로는 주요 후보 4명 모두 결선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AFP 통신은 분석했다. /파리=연합뉴스

너무 잘난 남자, 신랑감 인기 없어

완벽한 외모에 사회적 지위까지 높은 남자들이 의외로 신랑감으로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가디언지 최신호가 보도했다.

영국 샌트럴뱅크사대학 연구진은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신랑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가짜 소개팅 광고를 내면서 여성들로부터 매력에 철철 넘친다는 평가를 받은 남자들과 보통 남자, 매력 없는 남자 등 세 부류의 남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광고에는 “마음의 빚을 찾는 고독남” 등 상투적인 문구를 넣고 국립 통계청의 직업 분류상 지위가 상·중·하로 구분되는 각종 직업을 내걸었다. 최상위 직업군에는 기업 이사와 건축가, 중간 그룹에는 교사와 여행사 직원, 하위 그룹에는 웨이터와 집배원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 잘 생긴 남성은 못 생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출세 면에서 최상위 그룹이면서 용모도 뛰어난 남성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는 커녕 가장 가난한 남성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여성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룹은 수수한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었다. /연합뉴스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ALU- TES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을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매대학 South Bay 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진가를 느끼세요.

〈주의 요망!〉 흔히 시중에서 TESOL Certificate 과정, 수료증 과정이라는 것은 석사학위과정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ALU-TESOL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American Liberty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록이 되는 정규대학입니다.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해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의만큼은 자신만만!
먼저 입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의는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전 7:20~8:40 • 오후 4:40~6:10 • 오후 7:20~8:50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전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222-6253

www.donga.tv

덤프트럭용 자동덤펀개

대리점 모집 안내

당사는 덤프트럭용 자동덤펀개 전문메이커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수양이라는 브랜드로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금번 다음 지역의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개설예정지역

- 광주광역시 지역
- 전남 광양, 순천시 지역
- 제주도 지역

자격요건

- 덤프,특장차 정비 유관업종을 영위하시는 분
- 용접설비가 갖추어진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
- 덤프 자동덤펀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
- 부동산 담보 설정이 가능한 분

특 전

- 지역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 보장
- 주요 직거래처 출고차 덮개 장착대형 보장 스키니야코리아, 볼보트럭, 타타대우상용차

(주)SY테크(수양) | 문의: (055)385-2364 / 011-879-1472 Fax: (055)386-8517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499-4 <http://21sooyang.com>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0505-313-1515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TOEIC강좌 퍼레이드!

실전990

동아외국어학원은 오로지 토익 만점(990점)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탄탄한 TOEIC강좌로 소문난 동아외국어에서 만점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호화막강 강사진! 열강! 역강!

TESOL박사 최갑원장 | 토익만점 11회 조성훈 교수 | 토익 분석 전문가 차준오 교수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전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